



인사말씀

마지막 대동보 다같이 참여합시다.

내외 귀빈과 만담
하신 공친여러분,
계사년 새해 복 많
이 받으시고 가정마
에 넘치시는 복된 한
습니다.

안동김씨 대동보를 발간하게 되어 현재 수간주와 각 과의보로 진형하고 있으나 점차 각 과 종헌이 모자라서 현하여 명사공회 출판한 대동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리며 언더치 안 되거나 해외에 이주하신 분은 전지분들에게도 알량구하고 또 연락하신 대동보 각 과 득자를 하시도록 권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계사년 안동김씨 대동보가 가장 훌륭한 대동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훌륭한 대중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48회 정기총회 인사발령에 가뭇하오며 종전 여러분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21일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김 불 회 용

제가 올케 지나갔을
간 증시조 탄신 80주
행사에 많은 시간을
전반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주셔서 대과 없
마무리하고 후속적인
경영 총괄 증시조 할
19일 안동 학술발표
를 학술발표 행사에
서 많은 참여를 부탁
할간 및 탄신 80주
예정에 있으리라 프
를 부탁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
신 종친 여러분 오
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우리 안동김씨에
서는 지난해에 참
으로 중요한 역사
적인 행사를 가진

다. 임원진의 노력에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800주년 행사에 맞추어 참으로 중요한 출판공에 관한 자료를 집대성하여 책으로 발간한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으로 군사공과 철정문중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완성한 것으로 철정문중 여러분과 종족회장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금년에 우리 안동김문에서 대동보 발간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 걱정입니다. 대동보에서는 신문에 광고하고 파종회별로 설명회를 하는데 그치지 말고 지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명실 상부한 대동보가 계획한 대로 발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녕과 함께 대동회가 보수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풍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중회 고문 안철사공파 김태룡

대중회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지난 3월 21일 오전 11시 장각 서물시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안동김씨대종회 정기총회가 300여 명의 종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는 (典)훈고 인천통천회장의 사회로 태운 사무총장의 성원보고, 분회 대표회장의 개회선언, 국민여배, 인사소개, 종회에 헌신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표창, 회장인사말, 태풍고분의 축사, 전년도 결산보고, 급년도 예산(안)심의, 어전회의 승수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직은 인사말에서 "천년도에 봉
평한 송월공 탄신 800주년 기념제를 전
종인이 합심 협력하여 성대하게 맞출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며 금년도에 거행하
는 송월공 탄신 8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하였다. 또한 "현
재 진행중인 안동김씨대동보 발간에도

본은 종이가 합이어 있는 문종의 권본으로 대우한 대동보가 만일 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按)대동보 대동지문은 속사서인 『지내내 총림공 탄신 800주년경축』을 출현하여 개역대동보에 비록 수천지 않은 집령부와 권본에 대해 논할 수를 보자』고 하면서 『앞으로 대동지문하여 우리들의 성취를 높여도 될 수 있도록 하고』고 권한다. 또한에서는 『개탄 800주년과 관련하여 백범기념사업회와 공작, 인문사건위원회는 공작과 재, 또한 대동공과 총회 대동공과 시문관공과 상과 대동공과 재, 재 대동의 부회공에게는 공도장을 수여하였고 대동 직계손 20 한사 시 재주를 현명인(賢) 대동공에게 감사장을.

총합공 자료 집성을 계획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한 군사공과 칠정분장에 공로패를, 이에 적극 참여한 군사공과 재구, 발용, 태영, 문은공과 영환, 윤식공인에게 공로장을 수여하였다.

국외외교로 당선된 부사공과 함포의
수, 익공공과 적공의, 화산외교의 사법
고시에 제정된 도의공과 정관, 성공,
박사외교를 취득한 공산공과 수하, 익공
공과 우근에게 각각 공산공을 수여하였
으며 급근도에 장학공으로 삼발된 서을
문외외교로 당선된 정사공과 사사, 향양
정고공으로 제하공과 우공, 향양외교로
고통하고 제하공과 지현, 대헌정공고통하
고 익공공과 지현 종근에게 장학공사의
장학공을 수여하였다. 이러한 진전도
산보하고는 감사공과 받은 다음 해인
(14)에 대하여 최종한 바의 다시 예선
에서 실외하였기에 원안을 의결하자는
제외에 따라 원안을 의결하고 진전도 비
참하였다.



귀하를 「13세기 동북아정세와 김방경」을 주제로 한 학술발표회에 초청합니다.

●주최: 안동김씨대종회 ●주관: 한국중세사학회 ●후원: 경상북도 안동시

● 행사일시 및 장소 • 안동: 2013년 4월 19일(금요일) 오후2시 안동시민회관 • 서울: 2013년 4월 26일(금요일) 오후2시 백범기념관

제1부(13:00 ~) 등록, 점수 및 식전행사

제2부(14:00~15:00) 기조강연

- 안동: 민현구(고려대 명예교수) 「13세기 동북아정세와 고려사회」
- 서울: 김길철(동아대교수) 「13세기 동북아 정세와 고려사회」

제3부(14:50~16:40) 학술발표

- 장동익(경북대): 기록에 남겨진 재상 김방경
- 박재우(성균관대): 고려시대 김방경의 선대기록과 계보관념
- 이강하(한국학중앙연구원): 어원관계 전개와 김방경의 정치활동

식전행사는
후 1시 30분 부터
입니다

- 이정란(충남대) : 고려 후기 김병경 가문의 세족화 특징
- 김난옥(고려대) : 김병경 가문의 족보간행과 변천

제4부(16:50~18:00) 종합토론

• 화 장 : 윤용혁(공주대) • 발표자 : 전원
• 토론자 ▶ 안 동 : 김형수(한국국학진흥원), 도현철(연세대), 이영미(서울대).

▶ 서 울 : 이장한(고려대), 김인호(광운대), 이형우(인천대), 김병언(전남대), 이정신(한남대)

파 · 지역 종친회 소식

● 안협사공파종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2월 18일 오후에 소제 재을금과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의 종인이 참석한 가운데 안협사공파종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총회는 재정 파종회사무국장 및 사회로 성원보고, 대문파종회장의 개회선언, 국인리례, 회장 인사, (질)영목 문영공 총회장의 축사, 전년도 결산보고, 결년도 예산(안)심의, 안건토의, 태은 대종회 사무국장의 대종보발간에 대한 건의안 심의와 토론이 있었다.

태은 파종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파종회 업무는 물론 전경공익사업이 좋은 여러분이 협조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며 협조 수

단종인 대종보 발간에도 전 종인이 협심 단결하여 누보자 없는 참여로 성공적인 대종보가 발간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영목 문영공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양적인 인텔사공파종회에 감사한다며 대종보 발간에 함께 줄 것을 부탁하였다.

결산보고에 앞선 감사보고에서 모든 파종회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으며 특히 회계업무는 보리직 회계처리 원칙에 따라 처리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전년도 결산과 결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재정 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은 후 우안을 의결하였다. 안건토의 순서에는 별다른 안건 재의가 없어 대종보발간에 대하여 대종회 사무총장이 개요를 설명한 후 신문대제를 이용한 홍보를 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는 바 심원공을 금년 1월 26일차 조산일회로 이미 공고가 나갔으니 또 계속적으로 대종보의 경우 내부적인 홍보를 강화할 것을 말하기도 하였다. 한편 또 공고금 제재할 계획임을 알렸다.

「재민 총무대행」

● 익원공파 정기총회



2013년 3월20일 서울 대림동 소재 원조리자 회담비에서 2013년 익원공파 정기총회가 200여 명의 종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단결 파종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개회선언, 국인리례, 인사소개, 총회에 헌신한 종원에 대한 표창, 회장인사, 대회장, 문영공회장의 축사, 전년도 결산보고, 결년도 예산(안)심의, 임원선출, 총기인수준계, 전임회장 이임사, 선임회장 취임사, 기타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표창은 (鄭)종목 칠정문종 회장으로 송열공 지료집성 발간에 대한 감사제, 용세종친의 태은 향사시 제주현상에 대한 감사제를 겸한 다음 선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해 파종과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하였는데 대하여 감사한다며 앞으로

도 협조를 부탁하였고, 봉회 대회장, (鄭)영목 문영공회장은, (鄭)종목 판서공 총회장은 축사에서 익원공파종회의 단결된 모습에 감사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대종보 발간에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어진 결산보고는 감사에 감사보고를 들은 후 우안을 의결하였으며, 결년도 예산(안)도 원안을 의결하였다. 임원선출이 끝나가 갑작스런 안전사고로 임원선출이 중단되었는데 감사 2명도 이사회의에서 추후한 성의, 수 인 공인을 상임하였다. 전 회장의 총기인수 인수 후 선의회장은 회임자대 앞서 "재민, 재영, 만일 새 분이 갑종직을 수행하는데 제일 지원을 많이 하여 3년간 업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계속 단결하고 발전하는 파종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하였다. 석한 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종사에 대하여는 젊은 모르지만은 신대부터 총시일에 적극 참여하시는 어른들을 보아 고맙게 할 수 있는 데 자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기타 보의 시간에는 재공 대종회 고문의 대종보 발간과 관련된 설명과 질의 응답 후 회의를 마쳤다.

「사무국장 민일재」

● 부산 · 울산 · 경남 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부산 · 울산 · 경남 종친회 제33회 정기총회가 2013년 3월 31일 부산시 연제구 소재 해인사에서 80여 명의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화중 직전 회장을

의 개회 선언으로 상봉리에 개최되었다. 격려사에서 태조 고문님은 종친회 설립 당사를 회고하시면서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시고, 정회 회장님은 3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불심함으로 헌신하신 역대 회장님들과 원로 임원님 그리고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재원 이사님은 대종보 발간에 대하여 소상히 안내하였다. 2부 단합의 장에서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종친회의 발전을 바라면서 행사를 마쳤다.

「회중 총무대행」

● 청주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2013년 3월 25일 11시 정각부터 13시 까지 청주시 흥덕구 우암동 우암새마을금고 3층 회의실에서 종친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종친회 정기

총회가 열렸다. 태은 이사 사회로 김선회 회장과 내빈소개(대종회 전 회장 남용 고문, 문영공회장 영목, 재학공회장 태은, 정경공회장 장영준 등)와 회장인사와 남용 대종회 명예회장의 축사 사회 회장의 보고장이 있었으며 전년도 결산과 결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전원 일지로 양안 의결하였고 안건(회칙개정, 결산차분 등)을 의결하고 회의를 마쳤다.

「재민 총무대행」

● 증평종친회 제27기 정기총회 열려



안동김씨 증평종친회 제27기 정기총회가 지난 3월 18일 오전 11시 증평상강전대마을 식당에서 홍성철 증평군수, 문영공회장 영목 회장, 재학공회장 태은 회장, 안협사공파종회 태은 회장, 청주종친회 선의 회장, 과산종친회 만

을 회장을 내빈 다수와 증평 종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봉회 대회장 회장과 태은 안협사공파종회 회장이 보내주신 감사의 편지와 식장을 장식한 가운데 장을 종친회장의 인사말씀과 2012년도 사업 결산 승인에 이어 2013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장을 회장의 안동김씨 시조에 대한 설명과 청주종친회 선의 회장의 대종회 발간에 관한 특강 등으로 회기에 매해계 진행되었다.

「안동김씨증평종친회 회장 재민」

● 진천 종친회 정기총회



안동김씨 진천종 친회의 31차 정기총회가 2013년 3월 16일 11시 진천군 진천읍 청송회관에서 70여 명의 종친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영조회장은 인사말에서 종친회원들의 많은 참여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종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청년회원 조직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결구보고, 장악금 지급, 안협사공파 대종회장의 축사에 이어 2012년도 결산보고와 공지사향, 종친회 발전을 위한 토론 등을 마치고 회기에매한 가운데 총회를 마쳤다.

「진천종 친회장 총회 총무」

香田園藝

경조화환 · 학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선인동 448-21

TEL : 02-445-9777-6888

02-783-3166

FAX : 02-445-6999

H.P : 010-2490-0707

전국 꽃배달 상권을 다하고 있습니다.

愍肅公 金瑬의 사적과 묘소 이전

경현빌딩 준공 개관



▲ 민속공 묘소(충북 청원군 남이면 팔봉리)

민속공 김 인 1688(선조21) ~ 1637(인조15) 조선조 인조(仁祖)의 문신.

1609년(광해군1)에 진사가 되고 1615년 사년판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에 등용된 뒤 세묘원에 가담하지 않아 7 ~ 8년 뒤 봉상시주부(承旨)에 올랐는데, 36세에 부안현감으로 제1직에 부임하니 연이 돌아가지고 시가하는 자가 있어 무고함에 오래 한 직에 계셨다. 41세(인조6)에 영천군수를 거쳐 삼천부사(咸)에 임명되어 되었다. 삼천부사(咸)로 퇴직 후 선정묘로 인조(仁祖)께서 종위를 높이고 표창을 하셨다.

1680년 청나라의 사정이 급박함에 사북지방 관영을 모두 무신으로 교체할지나 관영을 김씨가 공의 신자라고 믿음이 따름으로 인해 유임시켰다. 병자년 12월 9일 청 대군이 왔던 대군으로 안락강을 도하, 침공하여 불과 7일만에 수도 한성(漢城)이 함락되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평안감사 홍명기(洪命基)의 명으로 지도산성(越里山)으로 향하려 했으나 평안감사는 어다쁜가 사라져 출로 여비를 모자라 하여 청나라 군대와 대치하여 항거하였다. 산후의 지령도 없이 홀로 싸우다 고위병 인성이 정동하에 관영의 이말자가 속출함에 따라 대개 붙어 이가기가 불가능함에 군·관·민으로 구성된 의병조직을 해산시키며 팔봉과 포(市)를 분해하였다. 일부의 병들은 같이 수기를 간청하기에 사위 김진호(金鎭浩)와 죽기를 맹세하고 산에서 물로 청나라 군대와 싸우다 적의 칼을 맞고 쓰러졌다. 적장은 항복하기를 권하였으나 공에서는 죽음이 끊어질 때까지 적들을 크게 꾸짖고 불질하여 끝내 해를 입었다. 때는 인조 15년 정월초 5일(사기1637)이었다.

그 후 난리가 끝나고 세상이 안정됨에 경기도 광주군 가사산(葛沙山)에 안장되고 세월이 지난 후 단대의 학자 우암 송시열(宋時烈) 선생이 묘갈(墓碣)문을 쓰셨다. 공의 거취한 죽음이 표상되지 못하는 것

을 늘 한탄한 영의정을 지낸 홍준보(洪準普)와 공의 둘째 아들인 세보(世輔)할아버지께서 탄원하시어 예조판서 김남중(金南中)이 주청하여 1684년(현종5) 조판에서는 이조판서를 추증하시고 본가에 정려문(旌門)을 세우고 표창하였다. 현종(宣宗)때 영의정 허적(許積)은 공이 삼천부사를 지낼 때 행적이 모호함을 사서 나라에 재량이 다닌다고 비방 무고하여 정려문을 열고 묘갈을 땅에 묻었다.

1680년 허적이 역적으로 누명밖에 따라 자손들이 다시 탄원하여 재는 의 물에 사십구멍을 하여 판부사 민승중(閔昇重)은 상헌 부판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였다. 공의 장남에게 순절하심을 꼭두한 백성과 유생들이 그 행적을 분명히 증언하고 탄원하여 본가에 정려문을 다시 복원시키고 삼천부에 사당과 순절비(殉節碑)를 세우고 묘비와 묘갈을 다시 세우었다.

숙종(肅宗)때 이조판서로 추증, 다시 좌참찬(左參贊)으로 높이고 정조(正祖)때 민속(愍肅)이라 시호를 내렸다. (위의 자료는 조선왕조실록 및 각종 문헌에서 수집)

묘소 이전

1930년에 경기도 광주(현 압구정동) 관세청 정문로에 방치되고 있었던 민속공의 신도비문을 한희석의 조부인 신 경복에서 복원하였고, 청원군 오창면 소재지에 있던 민속공의 부친 좌승지공 내의분과 민속공의 부인 경주 최씨 할머니와 민속공의 설단을 한희석씨가 1994년 6월에 충북 청원군 남이면 팔봉리에 이장 안장하였다.

한희 민속공 종회 전회장은 많은 위선사업들을 하여 대중회장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2년 11월 18일에 회장직을 명예롭게 물러나고 후임에는 태정 현회장이 승계하였다.

『민속공종회 김태근 제공』



▲ 경현빌딩

2013년 1월 25일 11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5-4에서 경현빌딩 개관행사가 있었다.

경현빌딩은 익원공과 관절사공(諱孝建 號 鑑齋)공에서 수원 관교신도시 개발로 수원권 토지 보상금으로 대지 구입(801.2㎡)하고 건적비(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3,267㎡)를 들어 어방전축사무소(대표 방응훈)에서 설계하고 유선종합건설(대표 김관교)에서 건축한 것이다.

건축 공사는 2010년 대지를 낙찰받아 평정침착을 거쳐 2012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이번에 준공한 것이다.

이번 준공식에에는 봉화 대중회장을 비롯한 공사 10여 명과 의의동장, 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준공행사는 지역 관설사공종공 부회장의 사회로 국민악제, 설계 및 시

공업체 대표에 감사패 수여, 재공 회장의 인사발, 봉화 대중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고 재공 부회장의 경현빌딩 연보, 저자인 황수복 설명, 안동김씨 선세사적, 안동김씨기금, 김신갑계림, 간곡동 등의 설명에 이어 빌딩 내부를 관광 후 1층 원광에서 현관 제막과 개관 테이퍼 컷으로 행사를 마쳤다.

이에 앞서 당일 오전 9시 경현 할아버님 묘소에서 재공 회장, 재공, 재공과 성회(按) 정 대중회 부회장이 건물 준공을 알리는 고유제를 올렸다.

관절사공은 총액금 13세손, 익원공 9세손, 문정공 6세손, 龍父는 증 영의정공(諱 肅宗)이시고 뜻은 원강공(諱 諱)이시다

『재공 부회장제공』

八峰山에서

八峰山 자라 수이 뿜은 그 여덟 가지 八峰이라 여덟 사람

큰 자람 나온다는 傳說 속에 여기 안동김씨(安東金氏) 뒀고 밝은 영흥할! 龍傳 때마디 그 큰 인물

만들 뒷산 골짜기 千年이 지난 오늘날도 그 傳說 지키나니 오.千年經 나 永壽 이어!

오늘 네 포근한 가정에 고을계 팔인 눈 녹아내려 옷장 藥水가 되어 적 溪谷을 축출하! 적시는 것은 그 千年을 沼潭하며 찾아 본 그 뜨거운 눈물인가 나 이 아랫대문 八峰山 산하여 定靜하였노라



西紀二九九年 五月十三日 金贊會 지음



팔문산(충북 청원군 남이면 팔봉리)

安東人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김낙용 회장

“부양받기보다는 사회에 책임지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그에 따라 세상은 많이 바뀌었다. 새로워진다는 것

은 전통의 바탕 위에서 그것의 그리고 부족함을 새로운 사상과 이념으로 바로잡고 보아야 조화시키는 것이다. 평생을 공작에 몸 담아 오면서 이러한 시대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숭선하여 깨우쳐간 지도자가 바로 평택시 노

인회를 맡고 있는 김낙용(金洛龍 80) 회장이다. (묘명은 윤(潤) 都) 京畿道 京畿府 西面 寺洞에서 인동김씨 정가의 아들로 태어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61년 29세의 젊은 나이로 고령에서 면장(面長)에 임명되어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 그 뒤 1974년 지방행정사무관에 합격하고 화성군청, 송탄시청, 평택시청에서 과장을 두루 역임하고 1989년에는 송탄시 의회보조조합 대표로서 6년간 재직하기도 하였

다. 대한적십자사 평택 노숙 봉사활동에 들어가 봉사활동에도 출생수반하였던 김낙용 회장은 정통적인 儒家에서 태어나 奎章閣(奎章閣) 이사와 종헌에서 2남 4녀의 자녀를 출생하여 誦經하여 모두 출가시켰고, 장남 春暉는 형정학 박사로 수원 장안대학교 수로 재직 중이다. 김낙용 회장은 만평생 공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현실과 나아갈 길을 모색하며 우리가 오늘 날 올바르게 살아갈 지름길을 찾아나서고 있다. 37년간의 공직을 거쳐면서 노

병적인 생활을 영위해 온 지도자로서 이제 대한 노인회 평택시지회 회장이라는 마지막 봉사의 길에 서 있다. 김낙용 회장은 “미래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이 세상에서 먼저 삶을 살아 본 어른들의 경험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다.”라고 하면서 이 귀한 자산을 잘 활용하여 “경로당에 노인들의 행복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며 남은 인생을 “봉사는 행복의 보람”으로 보낼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37년간의 공직을 거쳐면서 노

병적인 생활을 영위해 온 지도자로서 이제 대한 노인회 평택시지회 회장이라는 마지막 봉사의 길에 서 있다. 김낙용 회장은 “미래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이 세상에서 먼저 삶을 살아 본 어른들의 경험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다.”라고 하면서 이 귀한 자산을 잘 활용하여 “경로당에 노인들의 행복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며 남은 인생을 “봉사는 행복의 보람”으로 보낼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37년간의 공직을 거쳐면서 노

「기사 제공 대영 (군사정보통신부 총무)」

六庚申과 三尸蟲



육십갑자 중 십간(十干)과 십이월(十二支)로 구분되는 것이다. 간(干)은 양(陽)에 속하고 지(支)는 음(陰)에 속하므로 지(支)는 하늘(天)이고 지(支)는 땅(地)으로 통한다.

십간(十干) 중 경(庚)은 일곱 번째이고 십이(十二支) 중 신(申)은 아홉 번째로 이를 합하여 경신(庚申)이라고 하고 육십갑자(六十干支) 중에 경신(庚申)은 오십팔 번째로 두 달에 한 번씩 경신일(庚申日)에 맞이하여 일 년에 여섯 번 경신일(庚申日)을 맞이함으로써 육십갑자(六十干支)라고 한다.

지(支)에 해당하는 열두 지는 모두 동물 이름으로 되어 있어 있는데 신(申)은 원숭이(猿)를 칭한다. 서쪽을 지는 동물로 기원 이래 지가 조카를 구경 할 수 있는데 열두지 중 나무로 만든 원숭이를 볼 수 있다. 입과 눈과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집살이는 병어리 3년,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이라는 뜻으로 조카를 구경하라고 한다.

흔들 차원을 높여서 말하면 눈에서는 ‘제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論語十二篇 顏淵과 孔子의 仁에 대한

말씀 孔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고 권하고 있다.

이 조카상의 원숭이에 대한 전래는 옛날 민간요법의 약재인 신당에서 왔다고 한다.

다음 삼시충(三尸蟲)에 대하여는 동의보감 내경편에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삼시충이란 경중경에서 첫째 충상(上蟲)은 머릿속에 있고 둘째 충중(中蟲)은 병담에 있고 셋째 충하(下蟲)는 배속에 있다. 이것을 경가(經), 경중(經中), 경고(經下)라 하는데 이 시충은 사람들이 도를 닦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들의 뜻을 굽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상단점(上丹田)은 원신(元神)(바신, 신식 사유활동, 정신)이 거취할 궁(宮)에 오지 사람이 아관분을 열지 못하게하여 사슴이 살게 됨으로 생사의 운로를 막을 기하여 없다는 것이다. 만일元神을 잡아서 본공에 살게 한다면 시충은 저절로 멀하게 되고 진식(眞息) 즉 임정(入靜)상태에서 나타나지는 관공에 깊은 긴 호흡은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이른바 한 구멍이 열리면 온갖 구멍이 다 열리고 대관(大觀)이 통하면 온갖 마더가 통하게 되고, 즉 천진(天真)이 강령할 것이니 신령(神靈)이 하직 하므로 해도 신령(神靈)하게 됨으로 신령(神靈)한 것이다. 참고 동의보감 내경편 삼시충(三尸蟲)이란 생각 이 시충에 한가지 약점이

있었다. ‘경신일에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으면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며 만약 사람들이 잠을 자면 두 달 동안에 사람이 지는 것을 육십갑자에게 고하여 그 만 명을 단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하여 경신일에 잠을 자지 않고 살지 않으면 사람의 수명을 생취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때로서 고려시대 불가(佛家)의 고승들은 경신일에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는 습관이 있었으며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오는데 왕이 경신일에 밤을 새우기 위하여 신하들과 잔치를 베풀고 왕자는 친구들을 불러 놀이를 하며 밤을 새운다고 한다. 실례로서 조선왕조의 연산군은 경신일에 삼시충에 대한 시를 지었으며 자기 지은 시의 운자를 신하들에게 주어 시를 짓도록 숙제를 주었다고 하며 수경신의 노래도 있다고 한다. 조선실록 조종현의 살롬(707)에 육경신에 대한 설명 중 현재도 육경신을 수행하는 104세의 장두명(張斗明) 씨에 대한 사설이 실렸는데 장두명 씨의 말인 즉, “경신일은 수행하는 금기(金忌)로만 이루어진 날이라 신란한 우리들을 마음대로 이루고 있는 목(木)을 지기에 아주 좋은 날”이라는 설명이 있다.

우리 인간은 완성되지 아니하고 미완성으로 항상 어딘가 조그마한 결점을 지니고 있는 살 수 없으며 일찍 죽기 싫어하는 것이 사실인데

사람이 신다는 것은 죽기 위하여 사는 것이나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사후를 바랄하는 방법론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여 할 것이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살달 그름날이 잘 잠을 자면 늙음이 하얗게 선다는 말이 있듯이 늙음이 선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 늙는다는 것이다. 즉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이나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살달 그름날이 도래 할 것이다.

논어(論語)의 八篇 泰伯 伯 一節 말에 있다. “대는 죽으려 할 때 울음 소리가 애처롭고(烏之將死其鳴也哀) 사람이 죽으려 할 때는 그 말이 작하다(人之將死其言也微)” 즉 죽을 때 말을 하지 말고 생명이 부지하는 중에 항상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기 때문이라 육십갑자 말과 지는 달과 남을 닦하는 마음과 사바다를 깨어남과 마귀를 짓기에 노력하며 이 세상에 올래 올래 살았고(三善) 속에서(三惡) 갈 때 뜻이 먼서 열매가 아니듯 같은 아쉬움을 남기고 가는

것이 어려웠다. 註③ 三尸蟲(삼시충) 三尸: 尸中, 尸中, 尸中에 거처 인체의 건강을 지키는 神精 註④ 三尸蟲은 정신(淨神)이 상을 일으키는 요소 사람 몸에는 三尸蟲 즉 三尸蟲이 있다.

上尸는 彭蜮이라는 것으로 보름을 좋아하여 사람을 혼(昏)하게 지령에 빠뜨린다.

中尸는 彭蜮이라는 것으로 오미(五味)를 좋아하여 회노(高熱)의 감정을 불러와 주고 선량한 마음을 빼앗아하여 의식을 미혹(迷惑)시킨다.

하시(下尸)는 彭蜮이라는 것으로 색(色)을 좋아하여 사람을 미혹(迷惑)시킨다.

「문운공파 在漢 徐壽」

(주)兩白 문화재

문화재수리/한국사/제일

보수단형식 01-16-0042호



대표이사 김진식 (총괄 27세, 익원공파)

문화재수리/한국사 제 445호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

경력 열두시 800 325-1930 TEL. 054-606-1239 C/P. 010-3507-1239 E-mail: dsundol@nhanmail.net

정간공 사적·어록비 건립 제막



간공(諱永祿) 사적비와 어록비 제막사행가 있었다. 오경

2012년 11월 19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 모정리 안령사공 묘역에서 30여명의 후손이 참석한 가운데 정

10시 안령사공 신묘비 앞에 건립된 사적비와 어록비 제막에 앞서 태문장간공종의 회장의 인사말이 있고 나서 일로 종인 20여명이 제막을 하였다. 정간공(上洛侯 福祿 永祿公 諱永祿 貞顯公) 위신 사업은 3년 전부터 논의가 있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공

소요비용 오천오백여만 원은 안령사공과, 익원공과, 서운관장공에서 각각 일정한 몫으로 부담하였고 건립차에서 안령사공과에서 제공하여 건립한 것이다. 사적비와 어록비 위에 정간공 배위신 전 부주형 할아버님의 직함이 정간공 위상과 다음으로 하계와 고증을 받아 상당국대부인(上洛國大夫夫人)으로 하여



새로 단비를 세우고 상석도 규모에 맞게 새로 갖추었다.



「정간공종회 제정충무채공」

성금을 보내주신 종친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 01. 22 ~ 03. 31)

○ 평상회비

- 20만원: (鄭)우회(서울), (鄭)광회(용인), (鄭)찬회(아산), 경회(고양), 현수, 영철(서울), 도희(수원), (鄭)재림(홍천), 재호(화성)

計: 180만원

○ 찬조금

- 20만원: (鄭)시걸(부산), (鄭)호소공당자충종
20만원: (鄭)상용(서울), (700 전의), (鄭)두희(양평)
5만원: (文)재희(서울), 용만(공주), (鄭)항희(대구), (鄭)완희(평택), (鄭)영희(인천)

- 3만원: (鄭)규태(천안), 사천김씨충친회

計: 101만원

○ 통상회비

- 10만원: (鄭)이형(부산), (鄭)영희(평창)
5만원: (鄭)원식(서울), (鄭)우용(김포)
4만원: (鄭)한영(진주)
3만원: (大)재철(광주), (鄭)재선(김천), 삼백, 태연(서울), 태현(포천),

- (鄭)태관(청주), 수길(부산), 봉수(인제), 규희(파주), 윤희(안성), 정희, 들은(서울), (鄭)기호(서울), 철환(청주), (鄭)당수(인천), 춘식(서울), (文)태연, 윤만(서울)
2만원: (鄭)원식(경주), 종대, 수대(영주), 영희(성남), 재환, 노수, 영희, 호식(서울), 태위(대구), 락희(모은), 태호(수원), 재만(강릉), 윤환(논산), 천일(천안), 수열(경음), (鄭)두열(목포), 태형(월원), (鄭)태덕(광명), 용환(대구), 삼기(천안), 용구(당진), 석진(서산), (鄭)홍목(평택), (鄭)태길, 동식, 태은, 순도(서울), 재하(충주), 재연(인천), 성희(화성), 태석(남양주), (鄭)태성(과천), (鄭)학영(서울), 대현(세종), (文)수출(인천), 사용(서울), (鄭)병만(서울), 재현(세종), (鄭)영희(통해)

- 1만원: (文)수실(예천)

計: 167만원

○ 충혈공민선 800주년성금 - 30만원: (鄭)영희(용인)

제46회 정기총회 회비

(鄭): 용희(화성), 재림(홍천), (鄭): 이경(고양), 태복, 대국(서울) (鄭): 지국, 서재, 재관, 세국, 재하, 장희, 학수, 승남(서울), 재열, 재복, 정수, 완국, 재우, 남희, 봉희, 종국, 익수, 준희(파주), 재덕, 구희, 홍국(평택), 재복, 재국, 수학(의정부), 용국(화성), 재영(인천) (鄭): 현국, 종서, 양고, 규희, 종희, 재섭, 경희(서울), 종국(대전), 유고(의정부), 병수, 종대(안성), 태진(일산), 유국, 무희, 재국, 순희(세종시), 현이(인천) (鄭): 인호(인천) (文): 광우, 광도, 영환, 삼희, 환희, 영국, 천희(서울), 영문(광주), 수길(고양), 은식(양주), 효만(의정부) (安): 선호(하남) (鄭): 우희, 희국, 정수, 진중, 희수(서울), 은중, 대희(인천), 서영(부천) (大): 재식, 희주(서울), 재철(광주), 경중, 천희, 재갑, 용희(합평), 태성, 태권, 태식, 성무(보성) (鄭): 은식, 홍선, 철중, 영환, 태국, 봉희, 태중, 규환(서울), 태경(인천), 규태, 정중(천안), 동원, 삼선(제천), 규호, 태식(괴산), 태환(청주), 남식(서산)

계: 542만원(181명)

제46회 정기총회 찬조금 명단

문영공종파: 20만원
밀직사사공파: 10만원: 재영(파라장, 서울) 3만원: 용희(화성)
개성윤공파: 10만원: 파종희
군사공파: 10만원: 재희(파라장), 수인(서울), 낙용, 경희(평택), 준희(파주), 기용(김포)
전서공파: 5만원: 학수, 봉식, 홍수(서울), 익수(파주) 2만원: 승남(서울)
전서공파: 10만원: 순희(파라장), 재열(하남) 5만원: 유국(세종시) 2만원: 재섭(서울)
부사공파: 10만원: 파종희
문운공파: 20만원: 종희(서울) 10만원: 파종희, 재호(의정부) 5만원: 영국(파라장)
안정공파: 3만원: 선호(하남)
도평의공파: 200만원: 봉희(대중회화장) 30만원: 원중(재경충친회장)
대호군공파: 10만원: 경중(합평보성충친회)
재학공파: 10만원: 파종희, 남용(명예회장), 정용(생원공수진중, 천안) 5만원: 태국(파라장), 삼선(제천), 봉희(서울) 3만원: 철중(서울), 동원(제천)
판사사공파: 5만원: 봉선(파라장)
안열사공파: 30만원: 선희(수도권충친회) 20만원: 수도권충친회 10만원: 태문(파라장), 영만(인천), 진희(일산), 영식(서울)

(鄭): 봉선(군포) (鄭): 현수, 명식, 기식, 용주, 태길, 사관, 태원, 건식, 태은, 재국(서울), 성희, 태봉(인천), 용희(군포), 철희(안양), 도희(수원), 건희(김포), 진희, 경희(고양시), 홍희, 태중, 성희, 재만(청주), 태영(천안), 성희, 명희, 호식, 재은(세종시) (鄭): 재식, 재관, 영식, 유국, 근식, 재만, 도갑, 홍식, 영환, 성희, 용서, 영희(서울), 근식(남양주), 재영, 덕희, 영희, 태환, 태용, 재종(수원), 재영, 재영(안양), 광희(파주), 공희, 창식, 달수, 수환(용인), 수철, 재국, 현중, 선희(안성), 영수(의정부), 영재, 재영(안양), 철희, 장희(강릉), 창복, 기창, 종희(태안), 재인, 용재, 재진(당진), 종식(제천), 용은, 동수(안동), 광국(상주), 수선(포천) (鄭): 상호, 철호, 규은, 덕영, 기영(서울), 재은(성남), 동영(광주) (鄭): 태호, 태용(서울)

계: 956만

○ 축하환

안열사공파종회, 익원공파종회, 군사공파칠정문종, 인천충친회, 영기회 류종목, 향진예배, (인) 국회의원 김재경, 재연